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00원 상승한 1,319.80원에 마감

4일 환율은 전일대비 1.00원 하락한 1,319.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70원 상승한 1,320.50원에 개장했다.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등을 반영하여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중 역외 달러-위안에 연동하여 움직임을 보였다. 오전 장 후반 역외 달러-위안이 하락 전환하자 달러-원도 상승 폭을 반납하고 레벨을 낮췄다. 오후 들어 역외 달러-위안이 점차 하락 폭을 반납하자 달러-원도 상승 전환하여 1,319.8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6.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2.76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20.50	1322.00	1315.50	1319.80	1319.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01.70	904.75	900.26	900.95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20.78	1426.59	1418.87	1424.5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46	-5.8	-13.55	-28.96
결제환율(수입)	-1.04	-4.58	-11.78	-25.7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제한적인 중국발 리스크 온에...1,31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19.80) 대비 1.10원 하락한 1,316.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국발 위험선호 심리에도 결제수요 유입 영향에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중국은 부동산 첫 구매 최저 계약금 요건을 20%로 낮추고 두 번째 구매도 30%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민간섹터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를 새로 설립중이라는 소식도 보도됐다. 이에 아시아 장에서 중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여 위험자산의 상승 전환을 주도했다. 유럽증시도 장 초반 이러한 아시아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으나 장중 유로존 금리 인상 우려에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와 같이 위험선호 심리가 중국 증시 상승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면서 위안화도 약세로 마감한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발 위험선호

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저가매수가 하단을 지지하면서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5.00 ~ 132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071.6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0원 ↓
	■ 美 다우지수 : Holyday(Labor Day)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4.7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28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